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제

제4회 사하구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열려

4회째로 사하구 평생학습 성과공유회가 11월16일 다대포 낙조분수 아래 실개천 및 잔디광장 무대에서 열렸다. 홍보, 체험, 전시, 공연이 어우러진 성과공유회는 사하구 평생학습관, 사하구 장애인복지관, 각 행복학습센터, 성인문해교실 등 평생교육기관과 수강생이 참가하였다. 동아리연합회의 우수 학습동아리는 8개 체험부스와 7개의 전시부스를 설치하였고 11개 공연팀이 무대공연에 참가하였다.

사하구 평생학습관은 본부부스 2개를 설치하여 행사안내와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평생학습에 대한 성향과 관심도를 파악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건의를 받는 등 수요조사도 했다.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들이 준비한 체험부스는 모두 인기였다. 진로 직



업상담, 머리핀 만들기, 드론-에어로켓 만들기 등 체험부스에는 관심 있는 구민들로 붐볐다. 에어로켓을 조립하여 과녁을 향해 힘차게 발을 굴리는 어린이들은 신나 보였다. 이번 행사에는 특히 가족중심의 참여가 많아 성과공유회가 온가족이 함께 즐기

는 축제가 되었다.

13개 문해교실에서 준비한 성인문해 시화작품 전시도 있었다. '비가 와도, 바람이 와도 엄마 생각뿐...'이라는 손종자 씨의 '우리엄마'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구민들도 있었다. 늘봄풍물단은 일찌감치 풍물 준비를 시작

하더니 오후 1시부터 본격적인 공연을 펼쳤다. 흥겨운 가락과 장단으로 이어지는 민속놀이와 난타공연에 많은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자녀와 함께 참가한 이경애(44세·다대동)씨는 "다른 데서 체험하지 못했던 색다른 것들이 많아 아이들이 참 좋아하네요. 진로지도상담도 받을 수 있어 좋았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쿠폰발행이나 대기줄이 많은 것에 대해 아쉽다고 했다.

사하구의 평생교육기관과 학습동아리가 1년 동안 활동한 결과를 주민에게 보여주고 함께 즐기는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는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제였다. 구민들이 평생학습을 만나고 체험하는 장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천종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tagore0308@hanmail.net

2019 사하 다행복 교육지구 성과공유회



2019년 사하구 다행복 성과공유회가 12월 9일 사하구청에서 열렸다. 하단, 당리, 괴정 마을교육 공동체에서는 참여 학생들이 3D펜 수업으로 사하지역 10경 모형도를 만들었다. 교과서에서 공부하지 못한 것을 놀이로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살고 있는 지역을 더 잘 알게 되어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했다. 또 다송중학교 3학년 이경

민 학생은 청소년 마을 프로젝트 사례 발표를 했다. 학교 현관에 벽화를 직접 그려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 뿌듯하다고 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마을과 학교가 하나 되어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공동체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다.

손현아 평생학습 구민기자
ssnyen@hanmail.net

배움으로 성장하고 나눔으로 행복해요 고우니 행복여성아카데미 심화과정 수료

고우니 행복여성아카데미 심화과정 수료식이 11월 28일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열렸다. 학사모를 쓴 수료자 31명의 모습에서 긴장감과 수료의 기쁨이 느껴졌다. 수료증을 받은 수강생들은 여성리더로서 지역 사회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 감사하다고 말했다. 수료식을 마치고도 자원봉사 계획을 세웠다.

고우니 행복여성아카데미는 지역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지역 여성리더를 양성하는 여성특화 평생교육이다. 이번 심화과정 수업은 지역공동체 의식, 지역 여성리더의 역할, 다큐영화를 통해 지역문제를 인식하는 토론수업으로 이어졌다. 재능기부 활동을 위해 냅킨아트, 칼라클레이 수업, 친환경 EM제품을 만들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기부활동을 하였다. 폐목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하여 수강생들이 만든 미니화분을 장애인시설에 기부하여 업사이클링을 직접 실천하고 나누는 활동을 펼치는 시간도 가졌다. 추운 날씨에도 수강생 40명이 함께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깨끗한 사하구 만들기 환경정비 활동도 하였다.

사하구는 앞으로도 배움으로 성장하고 나눔으로 변화하는 지역 여성 인재양성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고우니 행복여성아카데미 심화과정 수료를 통해 고우니 행복여성들의 행복한 나눔을 기대한다.

문의: 사하구 평생학습과 220-4804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기 획



개성 만점 매력 만점 괴정동 작은도서관

감천동 다모아작은도서관이 폐관(2019.4.1.)되어 사하구에는 현재 16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사하배움마당>은 올 한 해 동안 작은도서관을 가까운 지역끼리 묶어 6회에 걸쳐 소개한다.

괴정은 사하구 인구의 약 19%를 차지하는 넓은 지역이라 4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괴정1동 회화나무 작은도서관은 2013년에 개관하여 장서 1만 3천 6백여 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규모도 큰 편이다. 도서관은 강의실, 학습실, 일반 열람실 각각 24개의 좌석을 가지고 있으며, 유리로 분리된 어린이실까지 모두 같은 층에 배치되어 있다. 넓고 쾌적한 도서관이 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인상적이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도 100여 명 정도로 사하구 작은도서관 중 1, 2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편이다. 근처에 초·중·고가 밀집해 있어 초등학생은 월2~3회 견학을 오고, 행복학습센터로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린다. 주부영어교실, 멘사셀렉트보드게임 지도사 과정, 창의영재보드게임, 독서캠프 등 성인과 어린이가 참여할 만한 강좌가 많다. 접근성이 좋아 사하구 곳곳에서 방문하기도 한다. 아들 셋을 둔 김혜정(42세·괴정2동) 씨는 “특히 큰아들이 책을 좋아해서 어린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성인 강좌도 자주 이용하고 있다.”며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괴정2동 까치마을 작은도서관은 올해 5월에 실버힐링센터 1층으로 이전·개관하였다. 카페 같은 분위기의 아늑한 도서관이다. 장서는 현재 7천여 권으로 규모는 작지만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새 책이 많은 것이 장점이다.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특성과 사하구 실버힐링센터 내에 위치한 덕분에 큰 글자도서도 3백여 권 정도 구비되어 있다. 미술치료나 치매예방특강에도 도서관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괴정3동 오작교 작은도서관은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해 있다. 2004년 말 개관하였으나 올여름 리모델링을 거쳐 9월에 재개관하였다. 오작교 작은도서관에는 오래된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이 도서관에만 있는 책들이 제법 있어 상호대차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괴정시장 근처에 있어 접근성이 높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연중 공휴일만 쉬고 월요일도 운영한다. 작은도서관 대부분이 주말 저녁 6시까지만 운영되는데, 오작교 작은도서관은 주말 저녁 10시까지 운영되어 주민들, 특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 경남중 2학년 천현진(15세·괴정동) 학생은 “리모델링을 하여 더욱 밝고 깨끗한 도서관이 되었다. 어린이실



14 회화나무작은도서관



15 까치마을작은도서관



16 오작교작은도서관



17 마하골길벗작은도서관

이 생겨 때로는 공부할 좌석이 부족하지만, 도서관에서 시험공부 하다가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올 수도 있어서 좋다.”라고 말했다.

괴정4동 마하골길벗 작은도서관은 승학어린이집을 2012년에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개관하였다. 넓은 공간 한 층에 학습실, 다목적실, 어린이실, 보존서고가 거리를 두고 독립되어 있어 각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 다목적실은 공간이 넓어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 이곳을 활용하여 요가 등 성인을 위한 주민밀착형 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는 요구도 생기고 있다. 행정

복지센터와 연계해 연 2회 ‘도서관 나들이 데이’를 운영한다. 도서관 옥상을 이용해 책 나눔 행사를 열거나 해먹 등을 설치해 캠핑감성 책읽기, 페이스페인팅 등 주민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문의 : 회화나무작은도서관 201-3096
까치마을작은도서관 202-0998
오작교작은도서관 220-5087
마하골길벗작은도서관 294-8850

김미영 평생학습 구민기자
ivy1201@hanmail.net

주민 참여로 만들어내는 평생학습

‘열린시민터 해봄’ 사하평생교육원

사하구에는 ‘함께 해보자’라는 의미로 지역주민과 함께 교육과 복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다. 바로 ‘열린시민터 해봄’이다. 해봄은 지역주민의 사회의식과 권익의식을 높이는 교육활동과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하는 복지 활동을 하는 공동체다. 지역주민이 누구나 회원이 되어 마을 활동을 같이 한다.

해봄은 부설기관으로 사하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하평생교육원은 교육부 지정 문해학습 교육 기관이기도 하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이 교육을 받고, 중도 학습탈락 청소년, 이주여성도 참여한다. 교육 기간은 3년이고, 단계별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초, 중등 학력을 인정하는 졸업장도 수여한다. 학습자는 한 달에 1만 원~2만 원 회비를 낸다.

사하평생교육원은 올해 개설한 지 20년 되었다. 2000년도 야간 한글학교로 시작할 때부터 글을 모르는 분들의 안타까움을 풀어 주고 싶었다. 당시에 배움에 목말라 오시는 분들은 배움의 열정이 대단했다고 한다. 2007년에는 사하평생교육원 문해교육 전담기관으로 등록되었다. 이후 부산의 거점기관으로 성장에 역할을 다하고 있다. 박미라 소장은 “학습자들이 글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 깊고 넓게 보며, 스스로를 지지하며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봄의 교육은 한글을 가르치며 개개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해봄은 마을 주민을 위한 환경 강좌를 열고,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문화제도 개최한다. 올해 중등 교육

기관으로 진입을 했고, 내년에는 창의재량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 유권자 교육이나 문화 감수성을 키우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포부도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해봄이 특색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

이경녀 평생학습 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아름다운 그대

아름다운 손을 만드는 사람
네일아트사 황진영 씨를 만나다

아름다운 보석과 멋진 그림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네일아트로 고객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일에 보람을 갖는 황진영(36세·다대동) 씨다. 그는 네일아트 자격증 취득 후 1년이 좀 지나 자신의 사업장을 열었다. 네일아트를 통해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 황진영 씨는 우드페인팅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일을 했지만 사업장이 문을 닫아 일을 계속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두 아이를 돌보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마침 친구의 소개로 평생학습관에서 네일아트 자격증 수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처음부터 창업

목표로 수업을 들었다. 목표가 뚜렷한 만큼 수업시간에는 더 집중하고 실습 시간에도 열심히 했다.

황진영 씨는 경험을 쌓기 위해 같이 수업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과 봉사활동도 했다.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관객들이 네일아트를 받고 예쁘다며 즐거워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사업장이 초등학교 근처라서 초등학생이 고객으로 와 예



쁜 보석을 붙여 달라고 할 때는 귀여웠다고 했다. “잘 다듬어지고 예뻐진 손톱을 보면서 필기하고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라고 고객들이 말할 때 자신의 일에 만족을 느꼈다. 네일아트를 하는 동안 고객과 주고받는 대화가 즐거워 어느새 고객이 이웃사촌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네일아트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과 유행을 배우며 기구 사용법도 꾸준히 익혀야 한

다. 그래서 황진영 씨는 평생학습관에서 네일아트 심화반이나 재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다. 그의 목표는 10년쯤 뒤에 직원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는 강사가 되어 자신의 노하우나 경험을 알려 주고 싶다고 한다. 더불어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은 많은 경험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전했다.



김미연 평생학습 구민기자
01hanthis@naver.com

세종대왕 상에 쓰담학교 김정순 씨
성인문해 어르신들의 한글 대결

사하구는 11월 7일 사하구청 대강당에서 성인문해 골든벨과 시화전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3회째 열린 성인문해 골든벨은 사하구 관내 14개 한글교실에서 수강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93명이 참가하였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한을 그대로 표현한 83편 시화작품도 함께 전시하였다. 차별과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일에 과몰입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의 희생과 애환이 작품 속에 담겨 있었다.

성인문해 골든벨 시작 전에 청년봉사자와 비문해 어르신이 함께 만든 성인문해 다큐멘터리 ‘쓰담쓰담 팬잖아’를 상영하였다. 등기소에 가서 등본을 발급받았는데 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의 이름이 맞는지 몰라서 봉사하는 분에게 물었더니 아래위로 훑어보면서 “손톱에 매니큐어 지우고 한글이나 좀 배우소”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그때부터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고 한글을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어르신의 사연이 담긴 장면은 성인문해 교육의 절실함을

느끼게 했다.

성인문해 골든벨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골든벨에 뽑힌 자부심으로 힘찬 파이팅을 외쳤다. 대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o x 와 객관식·주관식 문제가 출제되었다. 내 이름을 쓰는 문제부터 웃음을 주는 문제까지 다양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마지막 5명이 남을 때 까지 탈락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받아쓰기 ‘무릎을 꿇고’에서 탈락자가 많았다, 최종 남은 5인은 무대 위로 올라가서 문제를 풀었다. 마지막 5문제 중 가장 많이 맞춘 김정순 씨가 세종대왕상을 차지하였다. 김정순(69세) 씨는 사하구 평생학습관 쓰담학교에 다니고 있다. 나머지 4인에게 주는 훈민정음상은 사하구 평생학습관 최복자(70세) 씨, 열린시민터 해봄 사하평생교육원 오옥자(70세) 씨와 제춘분(71세) 씨, 신장림 사랑채노인복지관 권영랑(70세) 씨에게 돌아갔다.

김필분 평생학습 구민기자
shjpbun@naver.com

조물조물 흙의 감촉이 좋아
다름의 동행-장애인 학습놀이터

“이야 예쁘다” “우와 신기하다” 탄성을 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작은 방안을 가득 울린다.

다대1동 가온누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열린 다름의 동행-장애인 학습놀이터에서 자신의 손으로 만든 도자기 작품을 보고 터져 나온 함성이다.

다름의 동행-장애인 학습놀이터는 2019년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11월 한 달 동안 총 12개 기관에 진행하였다. 가온누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도 3회차 도자기공예 강좌가 열렸는데 참가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도자기공예 강좌는 평생학습동아리 연합회 ‘아름다운 손’에서 강사 3명과 ‘고우니 아카데미’ 수료생 봉사자 6명이 발달장애인 12명과 함께 하였다. 수강생은 도자기 재료인 진흙을 떼어 바닥을 만들고 굴리고 눌러 붙이는 작업을 했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흙의 감촉에 생경하면서도 즐거워하는 표정이었다. 담장, 사람, 물고기 형상의 작품을 만들고 이어 붙여서 붓으로 색칠을 하여 마무리 하였다. 진흙일 때의 모습은 볼품없어 보이지만 구워져 제품으로 완성된 모습이 아름다워 수강생들은 크게 만족해 했다.

가온누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김예준 센터장은 “이번 다름의 동행-



장애인 학습놀이터에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해 흙을 만지며 자기표현을 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하며 내년에도 이런 강의가 더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봉사를 한 ‘고우니 행복여성아카데미’ 안옥순 회장은 “발달장애인과 함께 해보니 저희가 베푸는 것보다 얻어가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더 많은 봉사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년 다름의 동행-장애인 학습놀이터는 장애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놀이터,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놀이터가 되었다. 아울러 장애인에게 더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도 느낄 수 있었다. 장애인에게 따뜻한 재능기부를 해준 동아리 ‘아름다운 손’과 ‘고우니 행복여성아카데미’ 수료생들의 봉사에 찬사를 보낸다.

박강균 평생학습 구민기자
alberto1@hanmail.net



사하구 평생학습의 자양분 행복학습매니저 모임 '행복디딤돌'

평생학습 수강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 숨은 공로자가 있다. 강사와 수강생 사이에서 디딤돌 역할을 하는 행복학습매니저이다.

‘행복디딤돌’은 2013년 사하구 행복학습매니저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행복학습 매니저 동아리이다. 처음 동아리가 결성되었을 때는 8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사 등 개인적인 이유로 4명이 남아 활동을 해왔다. 소수의 인원이 활동했지만 사하구 우수 동아리에 2번이나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에 2기 행복학습매니저 9명이 양성과정을 거쳐 회원이 13명으로 늘었다. 신입회원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미 평생학습에 강사로, 동아리 회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의욕이 대단했다. 신입 회원은 일정기간 실습 경험을 쌓은 후 6개 행복학습센터에서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행복학습매니저는 프로그램 모니터링, 수강생 출결관리, 강사관리, 수강생의 건의사항 등을 작성하여 한 달에 한 번 보고하는 자리를 갖는다. 수강생의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한다. 회원들은 수강생의 형편을 고려하여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습 성과를 높였을 때 보람을 느

낀다고 한다.

회원들은 행복학습매니저로서 강사와 수강생 사이에서 디딤돌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학습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 결과 회원들의 재능에 따라 문해교사로, 한문 강사로, 3D 강사, 북아트 강사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것은 강사의 마음과 수강

생의 마음을 잘 접목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했다.

안옥순(65세 · 감천1동) 회장은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감천1동 행복학습매니저로 활동하면서 하모니카 수강생 18명에게 동아리를 결성하게 하고 주민 센터로 연결하여 지금까지 유지하도록 도운 일을 꼽았다. “가까운 곳에서 강좌가 열리는데 수강생이 적어서 폐강될 때 안타까웠다. 무엇보다도 지역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자격증 과정 강좌는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 신중하게 수강 결정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전옥영(45세 · 다대동) 신입회원은 앞에 나서는 것보다 뒤에서 지원하며 보조를 잘하며 수강생의 요구를 잘 파악하여 반영하는 학습매니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미성 평생학습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창의적 공예 ‘레진아트 생활소품 DIY’ 인기



11월 한 달 동안 후끈 달아오른 평생학습 특강이 있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4회로 진행된 ‘레진아트 생활소품 DIY’이다. 사하구는 레진아트가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처음으로 레진아트 강좌를 열었다.

레진아트는 합성수지의 일종인 투명한 액체 레진을 사용하는 공예를 말한다. 쉽고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이 예쁘고 튼튼하여 실용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레진의 활용도도 무궁무진하다. 평면작업과 입체작업이 가능하고 레진의 투명도를 이용하여 그림이나 사진, 모형을 코팅하는 방식도 있다.

수강생 20여 명은 레진을 바르고 램프에 경화시키고 색을 칠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휴식

없이 진행하는 2시간도 부족해보였다. 이혜연 강사는 공방을 운영하며 진로체험 학습, 재활용품 공예로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 강의를 해오고 있다. 그는 성인 강좌는 처음이라 다소 긴장했지만 수강생들이 시간마다 즐겁게 참여하고 있어 무척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수강생은 강의 중에 팔찌와 그림책, 열쇠고리를 만들었다. 그들은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에 만족해했다. 한 수강생은 주어진 프레임이 아닌 작은 돌에 그림을 그려 레진을 입힌 작품으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생각에 즐거워하기도 했다. 수강생은 이구동성으로 레진아트를 잘 알지 못하고 수강했지만 4회로 끝나는 것을 아쉬워했다.

레진아트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공방은 아직 많지 않다. 그만큼 레진아트의 방향은 밝아 보인다. 이혜연 강사는 “레진아트지도사로 활동할 수도 있고 프리마켓을 이용하여 직접 판매하는 길도 있다. 주얼리 디자이너 직업과 연계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조언한다.

올 연말에는 레진아트를 이용한 나만의 독특한 액세서리로 멋을 내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도 해 보면 어떨까.

최진 평생학습 구민기자
jini3259@hanmail.net

건강 챙기는 혼밥 한 끼 요리교실



혼자 밥을 먹으면 차려 먹는 게 귀찮고 번거로워 대충 먹게 된다. 사하구평생학습관은 한 끼라도 든든한 식사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요리강좌를 개설했다. 사하구 신동경요리학원에서는 11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나를 위한 근사한 혼밥 한 끼’ 요리교실이 열렸다. 저녁에 진행된 강좌라 수강생 대부분이 직장인이었다. 퇴근을 하고 피곤할 텐데도 강사의 설명을 듣는 수강생들의 눈에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가 빛났다. 가족을 위해 요리를 배우러 온 수강생도 눈에 띄었다. 장명근(73세 · 신평2동) 씨는 주꾸미 덮밥과 계란탕을 배워 부인에게 만들어줬는데 맛있게 먹는 모습에 뿌듯했다고 말했다. 다만 수업이 네 번밖에 없어 아쉽다는 말도 남겼다. 이번 요리특강으로 수강생들은 혼자서도 금방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몇 가지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김정숙 평생학습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